

“친구 폰을 찾아라”... ‘시야 15cm’ 한강 현미경 수색

10일 오전, 경찰·민간수색팀 한강 나와

민간수색팀 잠수사도 참여...잠수수색

“시야 짧고, 쓰레기 많아...촉각 의존해”

서울 한강공원 근처에서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된 대학생 A(22)씨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인 경찰과 민간수색팀이 10일 오전 낮씨 속에서 수색작업을 벌였다.

A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B씨의 휴대전화 등을 찾기 위한 잠수 수색도 진행 중인데, 시야가 15cm 밖에 되지 않는 등 녹록치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기동단 등과 민간수색팀 ‘아톰’은 이날 오전부터 A씨가 실종된 반포한강공원에

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오전 10시55분께부터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부근에서 20여명을 투입해 꼬챙이 등을 이용, 풀숲 등을 수색했다. 소대장으로 보이는 한 경찰관은 “풀을 파는 게 아니라 헤쳐서 다 살펴라”고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이들은 수상택시 승강장 부근에서 한남대학교 방면으로 이동하며 수색 작업을 벌이다 오전 11시40분께 철수했다. 이후 오후 1시까지 다시 인력을 투입해 수색에 돌입했다.

수색은 친구 B씨의 휴대전화 등을 찾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잠수사 1명과 안전 통제 요원 2명으로 구성된 아톰 측 민간 심해잠수팀은 낮 12시35분께부터 잠수 수색을 시작했다. 잠수사는 수상택시 승강장 다리 밑부터 배수관을 따라 이동한 후 안전 요원 2명과 로프를 연결해 1m 간격으로 ‘ㄷ’자 수색을 진행 중이다.

잠수 수색을 시작한 뒤 얼마 안 된 낮 12시52분에는 수중에서 휴대전화 하나를 발견하기도 했다. 이 휴대전화는 B씨의 휴대전화로 알려진 ‘아이폰 8 스페이스그레이’ 기종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아톰 측 잠수사로 나왔던 김철주 UTR(Underwater Technical Research) 본부장은 오후 2시30분께 진행된 인터뷰에서 “수심이 3.4m, 온도 15도, 시야는 15cm로 눈 앞도 안 보

이는 수준”이라면서 “시야가 안 나올 때는 탐지기로 탐지하고 촉각으로 확인 후 물 위에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탐지기가 물 속에 있는 쓰레기들도 탐지하면서 수색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본부장은 “강동과 라면봉투, 은박지가 다 탐지돼 촉각에 의존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톰 측은 이날 오후 4시까지 잠수 수색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A씨와 B씨의 휴대전화 마지막 영상에서 언급된 ‘골든’은 특정 가수를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최근 새로운 제보가 접수돼 수사팀이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새로운 제보자는 기존에 알려져 있던 목격자



10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앞에서 민간 잠수부들이 실종 의대생 A(22)씨의 친구 휴대전화 수중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7명 외의 인물이라고 한다.

앞서 경찰이 파악한 A씨 사건의 목격자는 5개 그룹으로, 모두 7명이다.

경찰은 지난 6일까지 목격자 7명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정기자



스쿨존에 불법주차된 차량들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불법 주차한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다. 11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차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된다.

기존 직원 신규 채용 둔갑, 보조금 부정수급 40대 집유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창업 아이템 관련 사업 보조금을 타낸 40대 회사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식품제조업 회사 대표인 A씨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7월 사이 공

무원 등을 속여 보조금 9650만 원(국비·시비 등)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회사는 광주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은 이후 일자리 창출 사업 공모에 참여했다.

A씨는 사업 규정상 신규 채용된 노동자에 대해서만 인건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기존에 일하던 직원 6명이 새로 채용된 것처럼 서류를 꾸며 11차례에 걸쳐 보조금을 타낸 것

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유기농 곡물 3종을 개발·제조·판매한다’는 내용의 거짓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선도대학 창업팀 모집 공고에 선정, 6차례에 걸쳐 사업비 명목으로 지원금을 받았다.

A씨가 제안한 사업계획에 나온 곡물 3종은 이미 다른 업체가 만들어 판매해오던 제품으로 밝혀졌다.

최이슬기자

경실련 “LH임직원들 공공주택 매입, 평균 2.4억 수익”

‘공공주택 분양’ 202개 단지 1379명 조사
평균 분양가 2.2억...4월말 기준시세 4.6억
“무주택자 위한 공공주택 분양받아 수익”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창업 아이템 관련 사업 보조금을 타낸 40대 회사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식품제조업 회사 대표인 A씨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7월 사이 공무원 등을 속여 보조금 9650만 원(국

비·시비 등)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회사는 광주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은 이후 일자리 창출 사업 공모에 참여했다.

A씨는 사업 규정상 신규 채용된 노동자에 대해서만 인건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기존에 일하던 직원 6명이 새로 채용된 것처럼 서류를 꾸며 11차례에 걸쳐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유기농 곡물 3종을 개발·



제조·판매한다’는 내용의 거짓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선도대학 창업팀 모집 공고에 선정, 6차례에 걸쳐 사업비 명목으로 지원금을 받았다.

A씨가 제안한 사업계획에 나온 곡물 3종은 이미 다른 업체가 만들어 판매해오던 제품으로 밝혀졌다.

오유나기자

‘2000만원 요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해킹 피해...5시간에 복구

10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9시부터 다음달 오전 2시까지 5시간 정도 홈페이지 접속이 차단돼 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안전센터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홈페이지에는 검은색 바탕에 시간(21시36분)이 표시됐으며 휴대전화에 사용되는 기호 등이 노출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바탕화면 밑에는 검정색 글씨로 “안녕하세요, 해커입니다, 협상하려

면 여기에 2000만원 입금하세요, 아니면 사이트 전부 해킹 들어갑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좌번호가 쓰여 있었다.

문화전당 측은 홈페이지 접속이 안 되는 점을 인지하고 문체부에 알렸다.

이어 복구작업을 벌여 이날 오전 2시께부터 정상적으로 접속이 이뤄지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10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9시부터 다음달 오전 2시까지 5시간 정도 홈페이지 접속이 차단돼 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안전센터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홈페이지에는 검은색 바탕에 시간(21시36분)이 표시됐으며 휴대전화에 사용되는 기호 등이 노출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바탕화면 밑에는 검정색 글씨로 “안녕하세요, 해커입니다, 협상하려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